

2013
09

이달의 주요뉴스

전국 로스쿨생 대상 ADR 전문 교육 실시해
로스쿨생들과 환경정화활동 실시

인터뷰

이금림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언론 사람

제159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전국 로스쿨생 대상 ADR 전문 교육 실시해
법률 지식에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더해야
로스쿨생들과 환경정화활동 실시

04 인터뷰

“인간愛, 인간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담은 저만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 이금림(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07 위원동정, 위원회 소식

08 인문학 산책

삶은 ‘기억과의 전쟁’ 혹은 ‘기억을 위한 투쟁’이다

09 신 동의보감

부부관계, 만족하십니까?

10 위원단상

백두대간, 대자연의 선물

11 마이 힐링푸드 테라피

추억 속의 쥐포구이

12 로스쿨생 모의토론회 자상중계

초상권 동의 범위와 시각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13 로스쿨 교육참관기

꿈을 향한 새로운 응원

14 조정후기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며

15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 사람 | 2013. 09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발행일 2013년 9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로스쿨생 대상 ADR 전문 교육 실시해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전국 로스쿨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조정·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전문교육 및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번 ADR 전문 교육은 법원 조정제도 및 언론, 노동, 상사 등 제 분야의 조정제도와 사례, 설득과 수사, 협상의 이론과 기법 등 ADR제도를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

● 뿐만 아니라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 ‘조선시대 언론제도’, ‘언론환경의 변화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강좌와 함께 선배 법조인과의 대화, 언론중재위원 특강도 마련됐다.

● 교육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초상권 분쟁에 있어 동의의 범위’와 ‘언론조정신청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두 가지 주제로 로스쿨생 토론회를 개최했다.(12면 참조)

● 토론회를 마치고 권성 위원장은 실무수습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이 12일 제1차 예비법조인 ADR 교육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법률 지식에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더해야” 로스쿨생들과 환경정화활동 실시

“예비 법률가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가의 마음은 늘 사회를 향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송동경 학생 (이화여대 로스쿨)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법률인이 되어서도 주변 환경과 사회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초심의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정광 학생 (경희대 로스쿨)

ADR 실무수습 교육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8월 18일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법률적 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전개하자는 취지로 18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가량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진행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뒷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사무처 직원 및 위원회 실무수습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18일 아침 한강공원 잠원 지구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간愛, 인간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담은 저만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이금림(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 고등학교 교사
- 1980년 KBS 단막극 <소라나팔>로
드라마 작가 데뷔
-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 일기>
<은실이> 등 드라마 집필
-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드라마
극본상 수상
- 한국방송대상 수상
- 휴스턴 국제필름페스티벌
드라마부문 수상
-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현)



청소년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일기', 멜로드라마 '사랑을 위하여' '푸른 안개', 휴먼가족드라마 '옛날의 금잔디' '은실이' '복희누나' 등 전 세대를 걸쳐 사랑받았던 스타 작가. 지금은 2600명 방송작가를 대표하는 이금림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만났다.

●● 대학 졸업 후 국어교사를 하시다가 1980년 드라마 작가로 데뷔를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서울 명성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답니다. 가르친다는 것에 회의를 느껴 어느 날 문득 학교에 사표를 냈죠. 몇 달 후 우연히 가수 이수만과 성우 송도영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 프로그램에 스크립터로 참여했고, 그 프로그램에서 고정 코너를 만들게 됐어요. <꼭지의 일기>라는 여고생의 일기였지요. 꽤 인기가 높은 코너였는데 그것을 들어본 방송국 PD가 드라마도 쓸 수 있겠다 싶었는지 KBS드라마국에 소개해 KBS무대에 단막으로 데뷔했어요. 그 후 '개구쟁이 철이'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 일기' 같은 어린이 청소년 드라마를 여러 편 썼습니다. 교사로 일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지요.

●● 전주 한옥마을 '최명희 문학관'에 가면 대하소설 '혼불'을 쓴 고(故) 최명희 작가가 이사장님에게 쓴 친필 편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명희 작가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전주로 유학을 갔어요. 전주사범 병설중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저녁 식사 후 도서관에 가서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을 읽으면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명희는 학교 문예반에서 만났는데 서로가 쓴 글을 인정하면서 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녔던 중학교 분위기가 엄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자연스럽게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친구는 전주 기전여고에 입학했고 저는 전주여고에 입학했는데, 기전여고에 입학한 최명희는 본격적으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문예콩쿠르에서 최명희의 글이 최우수상으로 뽑혀 기전여고 문예반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요. 당시 기전여고 교복이 자주색이었는데 콩쿠르에 참가한 학생들한테 최명희는 <공포의 자주색 교복>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대요. 최명희가 뒤편하면 최우수상이나 대상은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전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독자로서 최명희의 문학을 사랑합니다. 그가 쓴 소설 문장은 <혼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하소설이지만 산문이 아니지요. 전편이 시(詩)입니다

최명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7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좋은 친구였어요.

●● 많은 작품을 집필해오셨는데 특별히 애착이 가는 드라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애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가장 최근에 집필한 아침드라마 KBS 2TV TV소설 '복희누나'가 최근작이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드라마=막장'이라는 게 공식처럼 되어 있었는데 사실 막장이어서 장사가 됐거든요. 4년 만에 부활되는 TV소설을 1TV에서 2TV 옮기는 것도 그래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원래 TV소설은 1TV에서 잔잔하게 나갔던 드라마인데 2TV로 옮기면 광고수익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복희누나는 막장의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으니 방송국 내부에서 광고수익 때문에도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시청률도 16%를 상회했고, 무엇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시대에 꼭 보고 싶은 드라마라고 극찬해 주셨어요.

YWCA에서 '좋은 드라마 상'을 받았던 것, 그리고 KBS 2TV 아침 시간대에 아침드라마 프레임을 바꾸고 <TV소설>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복희누나'가 한 역할 했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기분이 좋습니다.

●● 국내 많은 드라마가 불륜, 출생의 비밀, 배신 등을 소재로 다뤄 가족들이 같이 보기에는 민망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시스템이 열악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로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한 방송은 건강한 시청자가 만드는 것 아닐까요? 시청자들이 더 이상 막장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작가도 더 이상 쓰지 않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겠지만요.

예전의 경우 방송작가 혼자서 드라마를 집필했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보조작가도 없이 혼자서 다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작가 여러 명이서 한 작품을 집필하는 시스템으로 차츰 바뀌고 있어요. 미국의 드라마들처럼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집단집필제가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작업보다 여럿이 작업하면 아무래도 아이디어도 풍부해질 거고 시청자들에게는 흥미있는 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한 작가의 진지한 작품성이나 특유의 문학성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단 집필을 하다보면 어떻게 하면 시청자를 감동시킬까보다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놀라게 할까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진행과 반전, 그런 것들이 드라마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를 떠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와 같은 문학성이나 예술성 같은 것은 기

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드라마는 어떻게든 재미만 있으면 된다' 그 의견엔 반대입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어야죠.

방송풍토를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 방송작가협회에서는 방송평론가 상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곧 이사회 인준을 거쳐 공고를 낼 생각인데 전문적인 방송평론가를 배출함으로써 방송문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드라마도 시청률이 아닌 작품성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작품성 있는 드라마가 제대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 드라마를 집필하는 것을 '수틀에 수를 놓는 작업'이라고 비유하셨는데, 혼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다보면 심신이 많이 지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에는 작품을 마치고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가지는 것으로도 원기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마저도 힘들더라고요. 2009년 '집으로 가는 길' 작품 할 때에는 사경을 헤멜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2년 동안 수영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걷는 편이에요. 외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틈틈이 많이 걷는 것이 유일한 운동입니다.

잠을 푹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요. 제가 잠들 때 쫓으면 온 집안이 비상이에요. 한번 깨면 다시 못자니까요.

●●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출연한 적이 있고 클래식 음악계 최초로 오빠 부대를 이끌고 다니는 스타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가 작은 아들입니다. 이사장님의 예술적 정서를 물려받아 감수성이 풍부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책상이 없었어요.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공부는 학교에서 하지 왜 집에서 하느냐 나무라셨지요.(웃음) 어머니의 교육방법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어요.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거요.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원하는 공부를 하게 한다. 그게 제 교육방침이었지요. 근데 듣기엔 근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을 방치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애들이 웬만큼 큰 뒤 절 성토하더

라구요. 방치해놓고 교육방침 운운했던 제 알팍한 변명을 다 간파한 거죠.(웃음)

둘째 아들 정원인 예능유치원에 들어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학원에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 피아노 선생님께서 정원이가 재능이 있으니까 피아노 전공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듣고 참 심란하고 착잡했어요. 예술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지난한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지요. 막무가내로 피아노를 치겠다 고집피우고 혼자 예술 중학교 원서를 사왔을 때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번엔 유학 가겠다 고집을 피우더군요.

정말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자식은 키운다고, 키우고 싶다고 키워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예요.

●● 국내 드라마가 한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드라마를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를 널리 홍보하고 실제로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한류 현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한류는 드라마부터 시작해 요즘은 K-POP으로 이어지고 있어 드라마 작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한류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작가 개인의 역량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채널이 많아지고 드라마 편수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군소 제작사 난립으로 졸속 제작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한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산업의 현상은 암울합니다. 핵심동력인 카메라맨, 조명 등 전문 인력들이 열악한 근무요건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작가 한사람이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차세대 콘텐츠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 연수 과정 등을 신설해 전문가를 양성해 줘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습득한 노하우가 다시 산업현장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드라마에서 절실한 것은 드라마의 묘판이라 할 수 있는 단막극의 육성입니다. 단막드라마는 드라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르임에도 방송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상업논리로 줄줄이 폐지했습니다. 단막극은 신인작가, 연출가, 신인배우 등 신규 인력 양성의 창구입니다. 현재 콘텐츠 진흥원 지원으로 KBS가 단막극을 만들고 있는데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로 4년째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으로 방송작가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셨고, 방송작가 회원들 중 500여명이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주엔 크라운해태 제과 윤영달 회장님을 모시고 '아트 경영'에 대한 강연을 들었는데 작가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재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실감했지요.

그런데 정부 지원이 줄어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 아쉽고 안타까워요. 영국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선진국은 방송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곧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방송작가를 지원해 줄 예산이 없으면 작가 재교육도 불가능하죠. 한류의 중심이 되는 드라마 발전에 관계기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역사드라마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되어 유족들이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도 하고 시사고발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성격상 조정신청도 많은 편입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차원에서 위원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방송 제작시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우리 방송작가협회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하고 바래요. 매년 1박 2일로 위원회가 작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네요. 작가들이 대본을 쓸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인권권 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작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방송작가협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매년 1회 '저작권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호랑이 선생님'과 '고교생 일기' 등 청소년 드라마로, '옛날의 금잔디'와 '은실이' 등 가족 휴먼드라마로, 때론 '푸른안개' 같은 멜로드라마로 전 국민적 인기를 누린 작품을 집필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르의 작품을 구상하시는지요.

내년쯤 새 드라마를 선보일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의 이금림표 드라마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온 인간애, 인간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담은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COMMISSIONERS



TV 수신료 현실화 공정회 진행 맡아

한균태 위원(서울제5중재부, 경희대 정경대학장)은 8월 20일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가 개최한 'TV수신료 현실화 서울 공정회'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번 공정회에는 정윤식 강원대 교수가 발제를 했다.



문화융성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8월 13일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회관 4층 다목적실에서 문화융성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융성 실현 및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했다.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장 취임



박성희 위원(서울제8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8월 1일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부장 겸 언론홍보영상학전공 주임교수로 임명됐다. 박 위원은 2002년부터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5년까지 2년간 언론홍보영상학부장으로 임기를 수행한다.



제15회 유럽언론평의회연맹(AIPCE) 연례회의 참석

손영준 위원(서울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홍숙영 위원(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재원 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통역대학원 교수)이 9월 7~13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하는 '제15회 유럽언론평의회연맹 연례회의'에 참석해 언론중재위원회 업무와 활동을 소개한다.

다문화가정 자문변호사 위촉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변호사)은 7월 29일 경북 경산경찰서 다문화가정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장 위원은 다문화가정 자문변호사로 불합리한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소식

NEWS

여름방학 초·중·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17회에서 걸쳐 진행된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서울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106개 학교에서 345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 ADR체험과 언론사 견학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한국전통음악의 이해'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



위원회는 8월 23일 서울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악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음악평론가 이소영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장이 한국음악의 특징에 대해 강의하고, 임혜성 힐링국악 강사가 가야금 병창 및

민요 등의 음악을 실연했다.

이날 교육에는 권성 위원장, 정학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중재위원 6인과 사무처 직원이 같이 참여했으며, 교육 후 다과를 곁들인 간담회를 가졌다.

사무처 인사 (8. 5.자)

- 중부본부장 장원상 : 교육담당 전문위원 겸직
- 이재범 : 총무팀 전보

삶은 ‘기억과의 전쟁’ 혹은 ‘기억을 위한 투쟁’이다

최효찬
칼럼니스트



수년 전 중국 산둥성 곡부(曲阜)에 갔을 때 공자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곡부 관청의 규모에 놀랐다. 공자와 그 후손이 관리하는 관공서와 거주지인 공묘(孔廟)와 ‘공부(孔府)’는 황제가 산 자금성을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공부가 끝나는 지점에는 마치 후원(後園)처럼 200만㎡의 거대한 공림(孔林)이 있는데 공자와 그 후손들의 묘가 있는 곳이다. 공림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나무가 10만여 그루라고 하는데 후손의 묘가 10만기에 이른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공자의 묘 오른쪽에 오래된 나무가 우뚝 서 있다는 점이다. 봉분도 그리 크지 않아 우리나라 일반 봉분의 두세 배쯤 되는데 아담한 규모로 느껴진다. 중국은 묘의 봉분에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야 후손이 발복한다고 생각한



공자의 무덤

다고 당시 가이드가 설명해주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중순 안동으로 도보여행을 다녀왔다. 퇴계 이항의 종택이 있는 토계에서 시작해 먼저 인근의 퇴계 묘소에 들렀다. 그런데 퇴계묘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보고 아연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퇴계묘소의 알림판이 너무 낡아 글자가 모두 지워져있었다. 묘소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있는 이정표가 전부였다. 조선 최고의 대학자라는 퇴계를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요즘 지자체마다 관광명소를 상품화하느라 요란한데 안동시에서는 퇴계묘소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문득 잘 단장되고 관리되어 있는 파주의 율곡 이이의 묘소가 떠올랐다. 율곡의 묘는 그를 기리는 자운서원 내에 신사임당 묘와 함께 있다. 퇴계묘소는 조선시대 고위관료나 학자라면 의례히 있는 묘표나 곡장도 호석(둘레석)도 없었다. 문인석과 무인석만 제외하면 어느 필부의 무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봉문 크기만 조금 클 뿐이었다. 언뜻 성현의 무덤치고는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퇴계의 묘소

에서 문득 조선을 좌지우지했던 율곡의 기호학파와 이들의 권세에 밀려 은둔을 강요당한 퇴계의 영남학파가 오버랩 되었다. 무덤이 이를 말해주는 듯했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그런데 이게 어찌면 ‘고인’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계 묘소는 죽어서도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려는 고인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안동의 촌로는 “퇴계선생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라며 “여전히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면 그것만으로 퇴계는 여전히 스승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앞에 있네 /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어떨꼬”

이는 퇴계의 유명한 시다. 여기서 고인은 옛 성현을 말한다. 옛 성현을 본 적도 없지만 성현이 걸어간 학문의 길이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찌 그 학문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뜻이 담겨 있다. 퇴계의 학문하는 자세가 그대로 전해져오는 시다.

퇴계묘소를 들른 후 ‘퇴계녀던길(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퇴계녀던길에서 낭패를 당했다. 이정표만 만들어놓고 산 중턱에서 그만 길이 끊어졌다. 참냉쿨과 풀이 길을 덮어버렸다. 퇴계의 이름을 빌어 안동시에서 퇴계가 청량산으로 가던 옛길을 만들어놓고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퇴계 이항 영정

도보여행을 하다보면 절로 무덤들에 눈길이 닿는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죽음을 떠올려보게 된다. 그런데 필부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은 죽음 이후 그 ‘기억의 유통기한’이 불과 100년도 안 된다. 고작 3세대를 넘지 못한다. 마이클 아이젠버그(워싱턴주립대 교수)는 역사를 “말해지고 행해진 것들에 대한 기억”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기억과의 전쟁’ 혹은 ‘기억을 위한 투쟁’이 아닐까.

부부관계, 만족하십니까?

LOVE



박광성 교수
전남의대 비뇨기과

10년 전에 상영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는 노인의 성문제를 다뤘다. 영화 개봉 당시에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영화인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노인의 성은 중요한 이슈다. 비뇨기과 외래를 찾는 노인환자 중 소변문제로 약물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변을 더 잘나오게 할수록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환자에게 설명을 하면 70대의 경우에서도 소변이 불편하더라도 성기능을 유지하고 싶어 할 만큼 노인들도 성기능에 관심이 많다.

그렇지만 성에 대한 관심은 많아도 성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성에 관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89%가 생활에서 섹스가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73%보다 높은 반면, 성생활만족도는 약 9%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에 대한 관심은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부의 성문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를 보인다. 부부의 성관계 빈도수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남성의 경우 “1주일에 세 번 밖에 안한다.”로 답을 하는 반면 여성은 “1주일에 세 번이나 해요”라고 답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성호르몬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성적욕구에 관련된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정도 높아 성적인 자극에 여성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성적으로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남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이라면 20대에 아침에 일어날 때 팬티에 텐트가 쳐져 민망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침발기 혹은 조조발기라고 하는데 남성은 정상적으로 잠을 잘 때 3~5회에 걸쳐 일어나는 야간수면발기 현상이 아침에 잠이 깨어서 남아있는 경우이다. 아침발기가 나타나거나 발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혈관계,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계가 특별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40대에 뱃살이 생기고 음주, 흡연,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성인병이 생기는 무렵에 아침발기가 없어지고 뜸해지게 된다. 아침발기가 없어졌다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중년남성에서 배가 좀 나와야지 폼이 나고 또한 배가 나온 만큼 인품이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허리둘레가 90cm(36인치)가 넘으면 복부비만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만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시발점이고 발기부전과 심혈관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다. 발기부전이 나타나고 평균 3년 후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것을 보면 비만인 경우 아침발기가 소실되거나 발기능이 떨어지면 몇 년 이내에 심장질환이 발병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해주는 신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년남성에서 발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발기능은 심리적인 영향으로 우울증이 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스트레스의 요인이 없다면 발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발기부전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비뇨기과에서는 발기부전의 1차 치료방법으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하게 되는데 치료의 목표는 성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약물치료를 하면서 발기부전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거나 금연, 체중조절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운동요법의 경우 1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권한다. 50대 이상이 비만인 경우 체지방의 증가와 함께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운동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 좋고 저지방 고단백질 섭취와 채소, 과일을 권한다.

끝으로 발기부전은 남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의 질환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백두대간, 대자연의 선물

강행옥 위원
광주중재부, 변호사



백두대간 석병산 절경

지난 여름 37도의 무더위 속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땀과 너무나 힘이 들어 나 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지리산 자락을 넘어 백두대간 산행을 시작하였다.

별다른 준비없이 의욕만으로 나선 길은 처음에는 정말 고난의 길이었다. 신평령에서 소사고개를 넘어 삼도봉을 오르다가 숨이 턱에 차서 배낭을 진 채 뒤로 벌러덩 눕기도 하였고, 가는 로프 하나에 의지하는 하강코스에서 겁에 질리기도 하였다.

지리산에서 속리산 늘재까지 300여 km는 수도승들의 만행과 같은 고행 길이면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참회의 길이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들이 자꾸만 생각났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한 시간 이상을 고통 속에서 반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청화산, 대야산을 넘고 황장산, 도솔봉을 넘어 소백산 구간으로 다가가면서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대간이 나에게 주는 대자연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되었다. 문 북대 오르는 길에 잔디처럼 온 산을 덮은 애기나리 꽃밭, 소백산 언저리부터 200km가 넘게 이어지는 참나무 길은 가슴 떨리는 감동이었다. 이 땅에 태어나 그래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뿌듯함이 가슴 가득히 채워졌다.

만약 이 아름다운 길을 야생화의 길, 참나무의 길(oak's road) 등으로 이름 붙여 전 세계 산꾼들에게 소개한다면 뉴질랜드의 밀포드 트래킹 코스(뉴질랜드 남섬 코스피요드랜드 국립공원에 위치한 유명한 청정 트레일 코스)보다

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 길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과 애환들이 전설이 되어 남아 있지 아니한가!

또 다시 광주의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던 이번 여름 휴가철에 나는 피재에서 땃재, 땃재에서 백복령 구간을 7월 말에 넘고, 8월 둘째 주에는 백복령에서 닭목령, 닭목령에서 대관령 구간을 넘었다. 그 중 땃재에서 백복령 구간은 GPS로 29km가 넘는 거리로 한꺼번에 가느라 두타산, 청옥산, 고적대 해동삼봉의 경승을 한꺼번에 맞볼 수 있었으나 무리한 산행으로 탈수증세를 겪기도 했다.

백복령에서 18.2km 떨어진 삽당령까지가 한 구간인데, 14.5km를 더 지난 닭목령까지 하루에 가느라 나중에는 날이 어두워져서 땃돼지 우는 소리에 놀라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땃재 휴게소나 백복령 펜션 잠자리는 창문을 꽂꽂 닫고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시원하여, 열대야라는 낱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피서를 제대로 하였다. 물론 대간상에는 참나무류의 활엽수들이 우거져 한여름에도 25도 이상을 넘지 않는 시원한 온도에서 산행이 가능하였으니, 사무실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 것보다 나았다고 할까.

이제 대관령을 지나 종점인 진부령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은 맛있는 음식을 아껴 먹는 어린애처럼 나무 한그루 풀잎 하나도 사랑하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대간이 주는 호연지기와 평온함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

끝으로 백두대간이 우리만 보고 즐기는 자연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칭송하는 명품 트래킹 코스로 거듭나, 대간길에서 각종 외국어가 상시 들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대간길의 끝인 백두산까지 마음 놓고 종주를 하게 될 그날은 더더욱 빨리 왔으면 좋겠다.

추억 속의 쥐포구이



구울 화 연구팀장

2006년 봄, 아버지는 30년 1개월의 근속기간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셨다. 고용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마친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가족들은 입을 모았다. 본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 날, 사장님에게 꽃다발을 받으시는 아버지는 사장님보다 더 여유만만하고 당당해보였다. 하지만 딱 그날 하루 뿐, 바로 다음날부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은퇴 후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생활이었다.

가족들 중 아무도 아버지의 퇴직 이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므로, 잠시 힘들더라도 금세 잘 극복하시겠거니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장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진다는 불안, 이제는 사회에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자괴감과 더불어, 아침에 일어나도 나갈 곳이 없다는 무력감에 상상 이상으로 괴로워하셨다.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하신 말씀에도 “돈을 못 버니까 무시 한다”고 불같이 화를 내셨다. 내가 보기에 어머니의 툭툭 던지는 듯 한 말투는 아버지가 돈을 버실 때나 안 버실 때나 한결 같았는데, 아마 평생을 들어온 그 말투마저 거슬릴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리셨던 듯하다.

그 시절, 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나와 함께 야구를 보러 다니시는 거였다. 다행히도 아버지와 나에게는 함께 십 수 년 간 열렬히 응원해온 팀, 한화 이글스가 있었고, 마침 그 해의 한화 이글스는 신인투수 류현진의 활약으로 우승을 다투며 승승장구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주말이 되면 쥐포구이와 맥주를 싸들고 전국각지의 야구장을 유람하며 열심히 응원했다. 휴대하기 편리하고 짭짤한 맛이 맥주와도 잘 어울리는 쥐포는 야구장에 안성맞춤이었다. 시즌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쥐포 굽는 실력과 주량도 나날이 늘어갔으며, 한손에 쥐포, 한손에 맥주를 든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우리 부녀의 모습이 지상파 방송에 생생하게 중계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난 아무래도 좋았다. 함께 야구를 볼 때의 아버지는 예전처럼 당당하고 쾌활해보였고, 내게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었다.

그 해 한화 이글스는 딱 한결음이 부족해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다. 결승전을 보고 돌아오는 기차 안, 그야말로 쥐포 씹을 힘까지 다 소진하며 응원했던 아버지와 나는 축 처진 채 창밖만 바라보며 힘없이 앉아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참 신기하지 않니. 팀마다 보면 꼭 나이 많은 선수들이 몇 명 있잖아. 분명 힘은 젊은 선수들보다 떨어지고 매일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오면 자기 몫을 충분히 해주곤 하지. 그러고 보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쓸모없어지는 건 아니야. 다만 예전하고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젊은 사람은 잘 할 수 없는, 꼭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법이거든”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다. 쥐포처럼 거칠고 메마르고 투박한 손이었다. 아버지의 젊었던 날에, 강하고 단단했던 그 손으로 에이스나 홈런타자를 꿈꾸었을 아버지는, 이제는 단 한 타석이라도 그라운드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 직장생활 3년차이던 나는 아버지의 그런 간절함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아 가슴 한구석이 무디게 아팠다.

이듬해 아버지는 모 공사에 재취업을 하셨다. 매일같이 KTX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데다가 예전에 하시던 일보다 훨씬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노련한 경험이 필요한 일인가보다. 몇 해가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본인에게 주어진, 한때 간절히 바랐던 이 타석에서 본인의 몫을 다하기 위해 누구보다 즐겁게 일하신다. 그리고 나는 가끔 그 시절 우리의 야구장을 떠올려 본다. 사는 동안 한번쯤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건디게 해주었던 그때 그 야구장의 함성과 달콤하면서도 씹살했던 쥐포구이의 맛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열띠게 응원하던 그 날들은 내게도 더없이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하며 빙긋이 웃곤 한다.



대전한화야구장 (출처 : 한화이글스 홈페이지)

“초상권 동의 범위”와 “기각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언론중재위원회는 8월 23일 예비법조인 ADR 연속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상권 분쟁에 있어 동의의 범위”와 “언론조정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모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세션별로 실제 조정신청된 사건을 바탕으로 위원회 실무수습교육 중인 로스쿨생들이 패널로 참가해 피해자와 언론사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초상권 분쟁에 있어서 초상권 동의의 범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는 캠핑장에서 34개월된 유아가 부모를 잃고 길을 헤매고 있는 장면을 모 방송사에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유아의 부모는 유아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조정 신청을 한 사안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여성 신청인이 외국배우 윌 스미스와 휴대폰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해 초상권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한 사건이었다.

신청인측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은 방송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초상권 사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또한 공개 장소일지라도 초상권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측 입장을 대변한 토론자들은 방송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언론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중재부가 기각 결정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부산에 소재한 모 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부산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한 경우 ‘부산어린이집’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조정대상물이 ‘광고’인 경우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부는 반드시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제1세션 “초상권 분쟁에 있어서 동의의 범위” 주제로 토론 중인 로스쿨생



제2세션 “언론조정신청 사건의 기각 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주제로 토론 중인 로스쿨생

신청인측 토론자들은 기각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조정을 하는 것이 피해 확산 가능성을 막고 분쟁 해결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측 토론자들은 사유가 분명하다면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조정 남발 가능성을 막고 언론 취재활동을 위축하지 않으며 나아가 언론보도를 존중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위원회 본연의 존재 의의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제8중재부 장현우 중재부장(변호사)은 “다루어야 할 쟁점이 많은 사안을 핵심 쟁점별로 잘 요약했다”면서 “다만 언론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판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접근 자세를 가지고 조정에 임해야 하고 법조인은 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평했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토론회 총평에서 “실제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져 예비법조인들에게 현장 중심의 법이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적 소양을 넓히고 ADR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끌어 갈 법률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 위원장, 강평을 한 박정호 · 권오승 · 장현우 · 박현채 중재위원, 로스쿨생을 비롯하여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꿈을 향한 새로운 응원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마치고

이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토론회를 준비 중인 로스쿨생

지난 8월 12일부터 10일간 있었던 예비법조인 전문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 동안 조서관에게 직접 들었던 중재와 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심리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경험을 통해 앞서 배운 이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DR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수습 교육은 인문학, 수사학(修辭學) 등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과거의 법전에 대한 수업은 현재를 살아가는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동시에 학생들은 매일 토론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들을 각색하고, 각 쟁점 별로 찬반논거를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뒷받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던 학생들의 사이가 매일 함께 토론회 준비를 하며 가까워진 것은 물론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법리를 구성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이끌고 다독여주시는 담당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주간의 기간 중 하루, 시간을 내어 권 성 위원장님과 함께 한강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더러워진 길을 치우는 것을 넘어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뿌듯함을 얻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수업을 진행하시던 위원회의 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법률과 판례에 묻혀 살다 보면 가끔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꿈을 좇아 로스쿨에 입학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도 가끔 이 길이 옳은 길까 스스로를 의심해보기도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실무수습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쌓을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이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너는 잘하고 있다는 힘을 실어주는 응원이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들과 위원장님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민 덕에 저는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감히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좋은 기억과 함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걸음을 다시 달릴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양 다이닝 에티켓 교육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며



최영훈
서울 제4중재부 조사관

한 종합편성채널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영광굴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영광굴비 판매 상인들 180명이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들 각자에게 2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진짜 영광굴비는 아가미를 통해 살 속으로 소금을 넣은 후 3개월 정도의 해풍 건조를 해야 만들어지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굴비는 소금을 대충 쳐서 냉동하여 하루 만에 완성되기 때문에 굴비라기보다는 냉동 간조기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에서 굴비 가공·판매를 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소비자들이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게 되고 냉동기술의 발달에 따라 굴비를 오래 말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제조법이 변한 것이며, 소비자들의 저염식 선호에 따라 아가미에 일일이 소금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냉동 간조기를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굴비 업체가 1,000여 곳이 넘는데 정확히 조사한 뒤 방송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 전에 인터넷에 게시된 다시보기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했다.

조정심리에서 피신청인측은 인터넷에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영업의 막대한 손해 때문에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손해배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도 그 동안 굴비라고 하면 조기를 일정기간 말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 동안 속았다고도 생각할 것이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굴비들이 모두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생각할까? 신청인의 주장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개념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것. 더구나 일부 아주 고가의 굴비는 일정기간 건조해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면 신청인도 억울할 수 있겠다 싶었다.

조정안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담당 중재부는 법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라고 제안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후 신청인은 조정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이다.

판례에 따르면 보도금지 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법익침해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침해의 가능성이 아주 크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방송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보기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참조하되 그 결정이 어땠든 우리 위원회는 언론분쟁 담당 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조정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다년간의 법조 경험, 30년 이상의 언론현장 경험, 60년 이상의 인생 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 온 중재위원들이 이번에는 또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게 될지 기대된다.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화장품에는 사용금지된 MIT성분이 검출된 독물티슈' 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한 소비자단체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영유아용 물티슈인 B제품에 허용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인체유해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었는데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화장품에는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신청인 회사는 일본 등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해 화장품에 MIT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해당 중재부는 보도 내용 중 일본 등 외국이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하고, 일부 신청인 회사의 반론을 포함토록 조정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 초상권 침해 사례 | 동의없이 촬영, 부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300만원 배상

C방송사는 도심 속 일탈을 즐기는 캠핑족을 보도하면서 캠핑장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신청인 부모와 상봉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했다. 신청인 가족은 명시적으로 촬영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방송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무책임한 부모로 묘사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사전 동의 없이 신청인 가족을 촬영, 공표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피신청인을 설득, 당사자들은 VOD 화면 중 신청인들이 나온 부분을 삭제하고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현승 _ 찜통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사람] 표지에 실린 사진 속 시냇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워 보여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재씨 인터뷰 내용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와 이경재씨는 언론을 바라보는 공통된 견해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압으로 언론을 장악하기보단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칭찬할건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이고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인터넷상에서의 인권유린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선플운동' 같은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 방안을 구상해 봐야하겠습니다.

이응석 _ '공직자의 민원인 이해 구하기'를 읽으면서 공직자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인데도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한 파출소 소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사회가 법과 질서를 따르기 보다는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한쪽 말만 듣고 기사화를 하는 대신, 반대편 의견도 참조했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이 있는 데, 언론인들이 펜의 무게를 느끼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형화 _ 8월호 인문학 산책 <아버지는 죽어서도 자녀를 걱정하는 존재다>를 읽고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두고 길러 왔는지를 암시하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명예나 지위, 체면 유지를 위해 가식적이나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들도 가끔씩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식 낳은 죄(?)로 늘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는 무엇이든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잘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임도 엿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지나친 자식사랑으로 자식이 부모의존형이 되게 한다거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너무 편하고 풍요롭게 해 준다면 자녀들의 자립심이나 인내심, 사회 적응력 등에 큰 폐해가 되기도 한다는 점도 알았으면 합니다.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R 교육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인 ADR 기법에 관하여 공무원, 교사,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언론피해 예방교육

언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분쟁의 해결방안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